

11월 1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

□ 미국 기후 현황(10/21~1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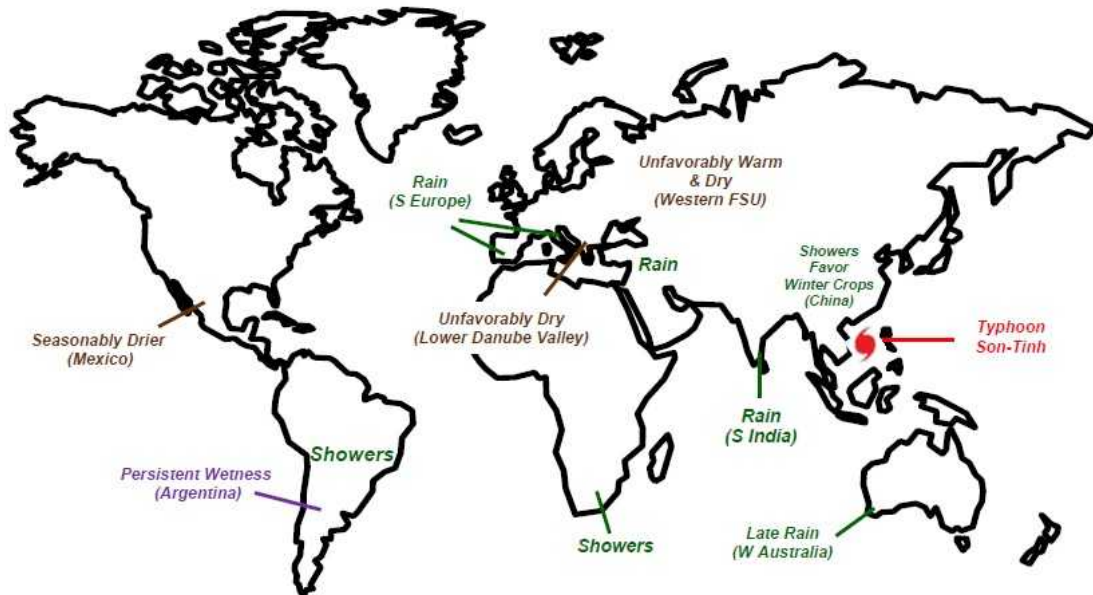
10월 27일까지 1주일간 미국 서부 및 중부를 가로질러 한랭대류가 팽창했다. 특히 북부 고원의 기후가 한랭해져 국지적으로 주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화씨 10도 이상 하락했다. 반면에 오대호 아래 쪽 지역은 주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화씨 10도까지 높았다. 한편 중서부지역은 비와 눈이 계속 내리고 있어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가뭄이 해갈되고 있다. 콘벨트 동부에 남아있던 가뭄은 최근 내린 비로 인해 대부분 해갈되었다. 중서부지역에 내린 비는 수확을 지연시키고 있으나 겨울밀에게 필요한 표토층 수분을 보충시키고 있다. 고원의 북서쪽 절반에 해당하는 적색경질밀(겨울밀) 재배지역은 가물어서 밀 발아율 및 입모율이 낮아 우려가 일어나고 있기는 하나, 약한 비가 내려 수분이 공급되었다. 북서지역과는 대조적으로 남동지역 및 남서지역은 전반적으로 기후가 건조하다.

□ 미국 작황 하이라이트(10/22~10/28)

※ 주중 미국의 남쪽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에 가깝고 상대적으로 건조하여 수확 및 파종작업을 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반면 대평원 및 록키산맥 북부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화씨 10도 낮았다. 대서양연안 중부 및 북부지역에서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화씨 10도 높았다.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북부 많은 지역에 주간 평균 강수량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비가 내려 소립곡류의 발아를 도왔다.

- 옥수수: 대부분의 주산지에서 수확이 마무리됨에 따라 주말기준 전국적인 수확율은 91%였다. 이는 전년보다 17%p, 5년 평균보다 31%p 앞선 속도이다. 주 초 콘벨트 일부지역에 비가 내려 생산농가들이 토양의 물이 빠지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발작업이 제한을 받았다.
- 콩(대두): 10월 28일 기준 수확율은 87%로 전년보다 2%p, 5년 평균보다 9%p 앞선 속도이다. 네브라스카에서 강풍으로 인한 도복피해가 보고되었고 일부 생산농가들은 남은 수확작업을 하느라 애쓰고 있다.
- 겨울밀: 주말기준 2013년 겨울밀 파종율은 88%로 전년대비 2%p, 5년 평균대비 3%p 앞선 속도이다. 텍사스 주는 국지적으로 발아의 촉진을 위해 수분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많은 지역에서 파종이 한창 진행 중이다. 10월 28일 기준 전국적인 발아율은 63%로 전년보다 소폭 느리고 5년 평균보다 4%p 느린 속도이다. 발아가 가장 많이 지연된 곳은 사우스다코타 주로 표토층 및 하층토 수분의 부족함/매우 부족함 비율이 각각 84%, 92%이다. 전반적으로 40%가 좋음/아주 좋음 등급에 해당했으며, 전년 동기 비율은 46%였다.
- 쌀: 10월 28일 기준 수확율은 94%로 전년 동기대비 3%p, 5년 평균 대비 2%p 빠르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수확이 한창 진행중이나 평년보다 속도가 뒤쳐졌다.

□ 세계 기후 하이라이트(10/21~10/27)



- 유럽: 스페인에서 이탈리아와 발칸반도 북부에 이르는 지역에 비가 내려 토양 수분이 증가한 반면, 다뉴브강 하류 유역은 건조하여 작황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 구소련(서부): 러시아 남부 및 우크라이나 남부가 온난 건조하여 겨울밀에 필요한 토양 수분이 추가로 감소했다.
- 동아시아: 소나기가 내려 겨울작물의 발아와 입모가 도움을 받았다.
- 호주: 호주 서부에 소나기가 다시 내렸으나 성숙기 이전단계의 겨울작물에 큰 도움을 주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
- 아르헨티나: 수분이 여름작물 및 유지작물(대두)의 발아에 충분한 수준이나, 습한 기후가 끊임없이 지속되어 겨울작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 브라질: 국지적으로 호우가 내려 옥수수과 대두가 도움을 받았으나 수확기 이전의 겨울 밀에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

□ 세계 기후 현황

- 유럽: 남부 유럽에 비가 내려 겨울밀에 토양수분이 보충되었으나 다뉴브강 하류 유역은 건조하여 작황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태풍전선이 느린 속도로 이동하여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북부지역에 국지적 호우 및 뇌우(강수량 10~100mm)를 유발하여 겨울작물에 토양수분을 보충하고 저수량을 증가시켰다. 발칸반도 북부에 약한 수준~중간 수준

소나기(강수량 2-20mm)가 내려 겨울작물의 입모를 도왔다. 반면에 다뉴브강 하류 유역은 가뭄이 지속되어 겨울밀 발아에 필요한 수분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북부 유럽은 영국과 프랑스가 습한 기후로 인해 중단되었던 겨울밀 파종을 재개하려고 하고 있어 기후가 건조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주말에 가뭄피해를 입었던 발칸반도에 비가 내려 겨울철의 추운 기후가 시작하기 이전에 수분을 공급하고 있다.

- 구소련(서부): 북부 및 서부 재배지역에 비와 눈이 내렸으나 남부 겨울밀 주산지는 건조하여 대조적이었다. 북부지역에 태풍전선이 형성되어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중부에서부터 러시아 중부 및 북부에 이르는 지역에 첫눈(강수량 2-25mm)을 내렸다. 이 지역의 북쪽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은 기후가 추워짐에 따라 작물이 동면기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남부 및 우크라이나 남부지역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최대 6°C 이상)생육기간이 연장되고 있으나, 평년보다 건조했던 가을로 인해 겨울작물 입모율이 나쁘다. 겨울철 기후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겨울밀의 입모가 충분히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비가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 동아시아: 주초에 화북평원지대와 양쯔강 유역에 소나기가 지나갔고 주말에 가벼운 비가 다시 한 차례 지나갔다. 화북평원지대에 내린 총 강수량은 1~10mm로 겨울밀의 발아 및 입모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여 유리하게 작용했다. 양쯔강유역의 주간 총 강수량은 25-50mm로 많은 수준이어서 겨울 유채의 파종을 늦추었으나 수분공급량은 증가시켰다. 주간 평균은 평년보다 1~3도 더 높아 겨울작물의 발아를 도왔다. 그러나 주산지의 북부는 영하의 기온이 지속되고 있다.
- 호주: 호주 서부지역에 강수량 2-16mm의 산발적 소나기가 내렸으나 성숙기 이전의 겨울작물 및 유지작물에게 큰 도움이 되기에는 생육시기상 너무 늦었다. 호주 남부 및 동부의 그 외 밀벨트 지역은 대부분 기후가 건조했다. 건조기후는 북부지역의 겨울밀 성숙 및 수확에 도움이 되었으나 남부 지역의 겨울밀 등숙에는 불리하게 작용했다. 밀벨트 최고온도는 섭씨 20도 후반대에서 30도 중반대로 지난주보다 낮아졌으나 평년에 가까운 수준이다.
-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중부 주산지에 계절적이지 않은 습한 기후가 지속되고 있어 겨울작물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나 여름작물에는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고 있다. 라팜파 북동쪽에서 코리엔테스에 이르는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25~100mm로 빠라냐 강 하류 유역(엔트레리오스, 산타페 남부,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부)의 주산지에 가장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다. 기온은 평년에 가까워 주 후반의 낮 최고기온은 섭씨 20도 대 후반 및 30도대 초반이었다. 남부 밀벨트(라팜파 남부 및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가벼운 소나기(강수량 2-25mm)가 내려 지난 주 호우가 내린 뒤의 밀 생육발달을 도왔다. 아르헨티나 농업부에 의하면 10월 25일 기준으로 옥수수 파종율은 40%로 전주대비 4%p 진전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15%p 느린 수준이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대두의 파종은 진행 중이지만 비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 브라질: 브라질 남부 광범위한 지역에 국지적 호우가 내려 여름작물에 필요한 수분을 증

가시켰으나 겨울말에 수분이 과도하여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빠라냐, 산타카타리나, 리오그란데두술 대부분 지역에서 강수량이 50mm를 초과했다. 마투그루수두술에서부터 미나스제라이스 남부에 이르는 지역(상파울루 대부분 지역 포함)에는 강수량 10-50mm의 비가 내렸다. 중서부지역(마투그루수, 고이아스, 마투그루수두술 북부지역)에는 산발적 소나기(강수량 10-50mm)가 내려 대두의 발아에 전반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되었다. 그러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므로(주간 평균 기온 평년보다 3-4°C 높고 낮 최고기온 섭씨 30도 중반 및 후반대) 수분증발의 손실이 많았다. 한편 지난 주 필요했던 비가 내렸었던 브라질 내륙의 북동지역(토칸티스, 바히아 서부, 피아우이 및 마라냥 근방)은 고온건조(주간 평균기온 평년보다 3-5°C 높고 낮 최고기온 38-40°C)한 기후가 재개되었다. 이 지역은 대두의 파종을 위해 비가 다시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 북동연안지역은 계절적으로 기후가 건조하여 수확이 유리하다. 보고에 의하면 대두 파종이 전년보다 지연되었다고 한다.